

자기애적 성격장애자의 하나님 표상 형성에 대한 기독교상담 방안*

박현철(성결심리상담연구소 전임연구원)

전요섭(성결대학교 기독교상담학 교수)

논문초록

본 연구는 왜곡된 자기애를 가진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의 하나님 표상형성에 대한 변인을 규명하여 건강한 자기애의 회복을 위한 기독교상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기애적 성격장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정의와 개념, 원인, 양육형태, 주요정서 및 특징, 구분, 자기애적 성격장애자가 하나님 표상을 형상화할 때 나타나는 관계적 변인들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기독교상담 방안에서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를 위한 사랑의 중요성과 하나님사랑, 자기사랑, 타인사랑을 통한 변화와 친밀함의 방법들에 관해 논하였다.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는 정서적 불안감이나 수치심, 질투심, 공허감, 불완전한 느낌, 열등감, 낮은 자존감 등이 내면에 문제시 되어 장애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정서적 불안전함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자기애적 성격장애자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건강한 인격을 소유한 자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고,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이 보다 풍성한 인간관계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자기애, 성격장애, 자기애적 성격장애, 하나님 표상, 기독교상담

2009년 6월 29일 접수; 8월 4일 수정; 8월 22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박현철의 석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전요섭이 지도하여 재편집한 것임

- I. 서론
- II. 자기애적 성격장애자의 일반적 이해
- III. 자기애와 하나님의 표상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
- IV. 자기애적 성격장애자의 하나님 표상회복을 위한 기독교적 상담방안
- V. 결론

I. 서론

현대인의 삶의 형태는 점점 더 자기중심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건강한 자기를 구축한 이들은 자신과 타인들과의 삶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지만, 건강한 자기를 구축하는데 실패한 이들은 대인관계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삶에 큰 고통을 준다. 이러한 문제는 인격적 결함의 부산물이다. 안타깝게도 이 결함은 특정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보편화되어가고 있다(Hotchkiss, 2003: XV). 자신의 기대가 좌절되면 분노를 느끼거나 심한 좌절감에 빠진다. 의미있는 타인에게 인정받으면 자부심을 느끼고, 인정받지 못하면 심리적 피해를 받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대인관계를 포기하고 과도한 자기몰입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McWilliams, 1994: 168). 현대사회는 이처럼 병리적 자기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바로 이러한 병리적 자기사랑을 일컬어 '자기애적 성격장애'라고 한다.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본질적으로 자신을 타인들로부터 고립시키고 현실을 올바르게 직면하지 못하게 한다. 이처럼 성격장애라고 명명되는 행동 양상은 현대인들 사이에 만연되어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증후일 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제한 자기강조로 인해 점점 소외를 경험하게 되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Masterson, 2000: 7-8).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은 모든 관계를 자기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들의 왜곡된 자아는 왜곡된 대상 표상을 한다. 즉, 왜곡된 자아는 왜곡된 감정을 만들어 내고, 왜곡된 감정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일으키며, 오해가 지속되면 결국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신앙과 관련지어 볼 때, 자아 이미지가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표상을 건강하게 형상화시킬 수 있지만, 자아 이미지가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 표상도 왜곡되어 질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고, 건강한 자아사랑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왜곡된 자기애를 가진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이 건강한 자기애로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올바른 하나님 표상을 형성하는데 있다.

II. 자기애적 성격장애자의 일반적 이해

1.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배경

(1)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정의와 개념

자기애는 나르키소스(narkissos)에 관한 신화를 19세기 후반의 성의학자 헤이블록 엘리스(Havelock Ellis)가 심리적 장애와 결부시킴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당시 성도착증으로 간주되던 동성애를, 남성이나 여성이 적절한 이성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투영하는 다른 남성이나 여성을 사랑하는 자기사랑의 병리현상으로 보았다. 그 후 넥케(Nacke)가 'Narcissism'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었으며, 그 뜻은 병리적 '자기사랑' 또는 '자기감탄'으로 정의하고 있다(Holmes, 2003: 8). 이러한 배경 아래 홈즈(Holmes, 2003: 9)는 'Narcissism'이라는 용어는 일상적 의미에서는 '자기중심' 또는 '자기몰두'와

동의어이며, '자기'라는 대명사를 남발하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고 표현했다. 매스터슨(Masterson, 2000: 127)은 자기에적 성격 장애는 팽창된 거짓 자기이며, 그들의 성격기반은 방어적 거짓 자기라고 분석했다. 즉, 자기에적 성격장애는 자기라는 축을 통해 부적절하고 과편화된 자기감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기에적 성격장애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광범위하게 왜곡된 관점을 보이는 장애이다.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일이지만, 자기에적 성격장애자는 자신을 특별하고 우월한 사람으로 과장하여 인식한다(Beck, Freeman and Davis, 2008: 361). 쾨버그(Kernberg, 2008: 278)는 자기에적 성격장애자는 지나치게 자기에 몰두해 있고, 표면적으로는 사회적 적응을 잘하고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타인과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으며, 강한 야망, 거대 환상, 열등감, 찬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진술했다. 또한 자신에 대한 불확실함과 불만, 타인에 대한 의식적-무의식적 착취와 무례함 등이 특징이라고 언급했다. 자기에적 성격장애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보다 내적 문제가 더 심각한 성격장애라고 볼 수 있다.

(2)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발생원인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발생원인으로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보면 그 근원은 3세에서 4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시작된다. 자녀가 어린 시절 공감적 양육을 받지 못하면 과대적 자기이미지를 놓아 버리고, 약점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게 된다(Beck, Freeman & Davis, 2008: 226). 이처럼 자기에적 성격장애는 일종의 정서적 결핍증일 수 있다. 맥윌리엄스(McWilliams, 1994: 169)는 자기에적 성격장애자를 결핍 모델로 설명하였다. 그의 자기에적 성격장애에 대한 이해는 부모의 공감 실패에서 비롯한다는 코헛(Kohut)의 개념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쾨버그(Kernberg)는 코헛의 견해와는 달리 유아기 때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이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발달에 주요 역할을 한다고 강

조했다. 따라서 유아기 때 양육자에 의해 충분한 공감과 애정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자기애적 성격장애가 발생하며, 어린 시절의 경험과 양육자와의 관계가 그 발생 원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반델로브(Bandelow, 2009: 106)는 221쌍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일란성 쌍둥이들의 성격장애 일치율이 35%를 보인 반면, 이란성 쌍둥이들에게서는 단 7%밖에 나오지 않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그의 연구는 성격장애 발생에서 유전자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밝혔다. 성격적 결함으로서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자기애적 성격장애자의 양육배경

타카시(Takashi, 2006: 55)는 자기애적 성격장애자가 유아기 때 사랑을 받고 성장했으나 도중에 양육자가 죽거나 생이별을 하여 애정 박탈을 경험했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진술했다. 자기애적 경향성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기 쉬우며, 자신의 열등감과 무가치감을 과잉 보상하려는 부모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 또는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양육배경을 분석해 보면 자녀가 업적, 성공, 지위, 인정 등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강요당했거나, 부모가 자녀를 성적으로 이용했거나, 배우자의 역할을 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Young, Klosko & Weishaar, 2005: 475). 미국 정신과협회의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유아기의 애정결핍, 즉 중요한 성인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난다고 밝혔다(Davis, 2003: 303).

(4)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가진 어머니는 자녀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상을 가지고 있다. 즉, 자녀는 어머니의 자기가치를 조절하기 위한 도구

가 되어야 하고, 자신의 존재 확인을 위해 필요한 외형을 갖춘 이미지와 일치해야만 한다. 쾨버그(Kernberg, 2005: 251)는 자기애적 어머니는 자녀의 의존성을 두려워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자기애적 병리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호치키스(Hotchkiss, 2003: 53)는 아버지가 자기애적 성격장애일 경우, 상반된 두 가지 방식의 부모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첫째, 아내의 임신으로 인해 마지못해 아버지가 되었다는 식으로 행동할 수 있고, 둘째, 아내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거부감, 배반당한 기분, 자녀에 대한 질투심 등과 싸우며 괴로워한다. 이러한 감정 뒤에 숨어 있는 수치심은 종종 아내에게 가혹한 비난, 가학적이고 상처를 주는 농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매스터슨(Masterson, 2000: 144)은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가져오는 원인이 아버지와 동일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자녀가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자녀는 어머니 때문에 생겨나는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와 경험을 이용한다. 즉, 어머니와 융합된 공생 이미지를 아버지에게 환치시킨다.

전통적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자기애적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병리는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남성은 자녀를 돌보는 것을 아내에게 맡기기 때문에 남성의 자녀양육방식은 가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드러나지 않으나 내면에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2. 자기애적 성격장애자의 특징

(1)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주요정서

① 수치와 질투: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는 현실을 왜곡하며 수치심을 일깨우는 것은 무엇이든지 타인에게로 투사시킨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마다, 열등감을 갖게 되고 수치심을 느낀다 (Young, 2005: 466). 또 수치심이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경험하지 않으려는 수단을 개발한다.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은 자신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빈번하게 질투를 느낀다. 그 이유는 다른 누군가가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은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빼앗긴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애적 성격장애자의 수치심과 질투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향한 부러움의 표현이며, 이기적이고 자기만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경멸과 시기: 자기애적 성격장애자에게는 경멸 뒤에 감추어진 시기심이 존재한다. 그러나 자신이 타인을 시기하고 있다고 인정하면 자신의 열등감까지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감정을 부정하거나 감춘다. 때때로 시기심은 지나친 칭찬이나 찬탄으로 위장된다. 자기애적 성격장애자에게 있어서 경멸과 시기는 자신의 피해의식을 감출 수 있는 최대의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③ 분노와 의기소침: 벡, 프리만, 데이비스(Beck, Freeman, Davis, 2008: 82)는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는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을 만한 특권이 있다고 믿기에 타인이 자신을 흠모하거나 존경하지 않거나 자신의 일을 방해할 때 분노를 경험하거나 의기소침이 나타난다고 진술했다.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는 자기가 심하게 상처를 입어 지탱할 수 없게 되면 자아가 붕괴되며 우울해진다. 그러므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자기애적 강도를 증대시키기도 한다(Fromm, 1998: 198). 이들은 언뜻 보기에 자신감에 넘친 것처럼 보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자폐, 우울, 대인기피, 심기증 등을 감추고 있을 때가 많다.

(2) 자기애적 성격장애자의 방어기제

자기애적으로 구조화된 사람들은 다양한 방어기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의존하는 방어는 이상화와 평가절하이다. 이 두 방어는 자기가 이상화될

때는 타인이 평가절하 되고, 타인이 이상화될 때는 자기가 평가절하 된다는 점에서 상보적이다. 자기에적 성격장애자는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처리할 때마다 끊임없이 이상화 작업을 하여 '최고로 좋은', '제일 훌륭한', '가장 엄격한' 등의 상대적 위신과 명성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현실적 장점이나 단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McWilliams, 1994: 173).

이들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상대방을 선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결함을 감추기 위해 상대방의 사소한 결점이나 결함들을 들추어내며,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려고 한다(Young, 2005: 480). 자기에적 성격장애자들에게 있어서 방어기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위대한 방어막이 되며, 대상과의 관계에서 건강하고, 상호적 만남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3. 자기에적 성격장애자의 인간관계

(1) 남녀 성별에 따른 자기에적 성격장애

비하리(Behary, 2008: 6-7)는 자기에적 성격장애자의 75% 이상이 남성이라고 말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공격성이나 경쟁성, 타인에 대한 제한된 감정적 의존, 지배성, 사회적 기준 등 남성과 관련된 특징이 자기에적 성격장애에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천적인 특성과 양육방식에 따라 만들어지는 특성 사이의 충돌과 그 차이점에서 기인하는 영향력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서 여성도 자기에적 성격장애를 보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경우 외모나 사치, 가족의 사회적 지위, 보호자로서 자신의 입지 같은 영역에서만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경향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자기에를 비교하였을 때 사회문화적 특성상으로 남성이 상대적으로 자기에적 성격장애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위기에 처하면 공격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자기에를 지키기

위해 자기애를 상처 입히려는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무시함으로써 자기애를 지키려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기애적 성격장애자의 자기애적 욕구는 직접적으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내면에 가려진 경우도 있으며, 자기애적 욕구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할 일을 서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자기애적 성격장애자의 사랑관계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은 누군가가 그들에게 공감과 돌봄을 제공할 때 인정이나 감탄, 관심은 받아들이지만 사랑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특히, 연애상대나 배우자 같이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조차 상대방으로부터 참된 사랑을 받는 것보다 칭찬과 감탄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은 부모님의 양육형태에 기인하여 자신을 정서적으로 결핍시키는 상대방에게 끌린다. 그들은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를 편안하게 느끼고 그 상태를 감내하려 한다. 또 다른 경우는 따뜻하게 베푸는 성향을 가진 상대를 선택해서 그저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Young, Klosko and Weishaar, 2005: 478).

따라서 이들은 자기중심적이며, 이들의 불완전한 사랑방식은 '완전함이란 없다'는 왜곡적 사고로 자신을 구속하게 된다. 또한 사랑의 대상을 '정복' 혹은 '획득'했다는 충족감으로 상대의 개체성을 부정하고 '우리는 하나'라는 환상을 내세운다. 자기애적 성격장애자의 자아상은 다른 사람들까지 자기사랑의 대상을 이상화된 방식으로 보기를 요구한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은 지적이며 성공한 사람 혹은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대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Hotchkiss, 2003: 123-24).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는 사랑관계에 있어서도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관계를 지속하는 외로운 자이다. 이러한 특성이 모든 자기애적 성격장애자의 보편화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자기애적 성격장

애자들이 이러한 연속선상 위에서 대상관계를 지속한다.

III. 자기애와 하나님 표상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

1. 표상과 자기애에 대한 성경적 이해

(1) 표상의 일반적 개념과 성경적 개념

표상(representation)은 실상이 아니고 경험된 시각, 또는 마음속의 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서적으로 경험된 바가 내면화된 것이 표상이다. 표상은 외부 세계에 대한 주체적 이미지를 의미하는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예측하고 있는 타인의 기대나 예상, 정서적 반응을 의미한다(전요섭, 2004: 443). 이처럼 표상은 겉으로 드러난 상징적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심리학적 범주로 표상화할 수 없다. 하나님은 가시적인 영역과 비가시적인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본질 그 자체이시다. 리주토(Rizzuto, 2000: 94-95)는 표상으로서의 하나님은 어린 시절의 이미지들, 감정들, 그리고 기억들로 이루어진 인간을 정서적으로 감동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진술했다. 즉, 하나님 표상이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주는 감정적이고 경험적인 것으로 심리적, 주관적 현실 속에 존재하는 정서적 표상이라고 보았는데, 리주토가 영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적인 개념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성경에서는 표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다. 개역한글판에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한 구절이 제시되어 있으며 개역개정판에서는 표상을 모형으로 사용하여 문자적으로 표상이라는 단어가 없다. 여기서 표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τυπος(튀포스)²⁾인데, τυπος의 주

2) τυπος는 신약성경에 14회 나오며, 다음의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다. 요 20:25 (자국), 행 7:43 (형상), 행 7:44 (식, 우상의 형상), 행 23:25 (아래, 본문-편지의 내용), 롬 5:14 (표상), 롬 6:17 (본), 고전 10:6 (거울), 빌 3:17 (본), 살전 1:7 (본), 살후 3:9 (본), 딤후 4:12 (본), 딤후 2:7 (본), 히

된 의미는 충격에 의해 만들어진 자국, 낙인된 것, 남겨진 표시 또는 표시에 의해 만들어진 형태나 윤곽을 의미한다(Dunn, 2003: 497). 그러나 이 구절에서 표상은 '전형(RSV, type)' 또는 '모형(NIV, pattern)', '예표'라는 의미로 쓰였다.

성경은 수많은 예표들과 표상들로 하나님을 형상화한다. 즉, 표상이라는 개념이 문자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표상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전인격적 형상을 뜻한다.

(2) 인간의 죄성과 자기애의 연관성

인간이 겪는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애 사이, 하나님의 권위와 자신의 권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투쟁을 통해 나타난다(Bobgan, 1985: 33). 인류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려는 점에서 죄는 인간의 인성에 깊이 박혀 있는 반역과 불순종이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손상시키고 왜곡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과 자아에 대한 시각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 인간이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용서와 구속이 필요한 자, 자아와 상황과 정체성에 대한 판단이 왜곡된 자로 본다든 것과 같은 것이다(McGrath, 2003: 91). 이처럼 왜곡된 자기애는 죄와 연결되어진다. 비츠(Vitz, 1997: 95-107)는 "자기애는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를 가능케 하는 기도, 묵상, 경배 등의 영적 삶이 배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죄의 유혹은 인간의 정체감에 대한 위협이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도전이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부인하는 결과를 야기 시킨다(Kirwan, 1986: 99). 따라서 죄는 인간의 참자아를 상실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시킨다. 이러한 분리는 수치심과 죄의식을 야기 시킨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행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하는 욕심에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 후 인류 안에 있던 하

8:5 (분), 뱀전 5:3 (분)

나님의 형상이 깨졌고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준거 틀을 통하여 보지 않고, '자아'라는 준거 틀을 통하여 바라 하다(Kirwan, 1986: 104).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의 배후에는 '자기충족'과 '자기사랑'이라는 인간의 욕망이 전제되어 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의 특성은 자율에 대한 욕망, 즉 자기충족과 자기사랑이라는 우상에 대한 열렬한 추구이다. 따라서 죄와 자기애는 분리될 수 없는 단단한 연결고리로 얽혀있다고 볼 수 있다.

2. 자기애와 하나님 표상

(1) 건강한 자기애의 하나님 표상

브라운백(Brownback, 2000: 124)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인간성의 위엄과 가치를 마련해 주고 자기애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고 진술했다. 그의 주장은 죄가 인간의 형상을 손상시킬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무한한 가치를 가진 피조물임을 제시해주는 것이며, 인간에게 이러한 존귀한 가치를 부여한 하나님 형상 안에서만이 건강한 자기애를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자신에 대한 거짓 이미지를 깨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추악하고 부정적 감정들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건강하고 진정한 자기애이다. 건강한 자기애는 현실적 자기평가에 근거한 자존감을 가지며, 자기를 나타냄에 있어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

따라서 건강한 자기애의 하나님 표상은 인간과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겸손을 보일 줄 알고, 타인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육적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짐으로 양육자에 대한 표상을 자신이 의지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표상할 수 있다.

성경은 풍부하고 다양한 이미지로 하나님을 묘사한다. 맥그라스(McGrath, 2003)는 하나님과 인간의 부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하나님의 부성은 성경

일부에 나타난 강한 모성 이미지와 어우러져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하나님과의 애착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며 이것은 인간의 부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맥그라스의 주장에 근거하여 리주토(Rizzuto, 2000: 83)의 연구를 보면 20명의 기독교인과 유대교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설문, 면접, 그림을 통해 하나님 표상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모두 자신이 어렸을 때 경험한 부모와 관계와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형성되었음을 밝혔다. 그의 연구는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일부 시사한다. 즉, 부모를 통해 건강한 외부대상 표상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표상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러나 거킨(Gerkin, 1998: 119)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관계상의 유비(analogy)는 상당히 다른 관계의 이미지를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순간부터 분리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자기애적 요구에 반응해 주셨고, 원초적 부모로서의 하나님 상에 큰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인간의 자기애적 요구를 허락하셨다. 동시에 하나님은 세계가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 아픈 인간의 요구에 모두 응해 주시지아픔않음으로 타자성(othersness)을 확실히 하셨다. 거킨(Gerkin)의 주장은 인간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 건강한 외부대상 표상을 위한 양육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양자된 인간들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 안에 근거해 있는 관계성으로 인해 건강한 대상 표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2) 왜곡된 자기애의 하나님 표상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은 이상화된 자신에 대한 정신적 우상과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반드시 소유해야 하며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이 부여하지 않는다면 수치심과 경멸함, 분노 등이 표출되어 하나님의 대한 왜곡된 표상을 형성한다. 메이(May, 2006: 42)는 인간의 생각, 표상, 개념은 단지 기호와 설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착각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너무 집착한다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예배하게 되며, 이것은 영적인 신경증, 즉 정신적 우상이라고 주장했다.

호니(Horney, 2006: 109)는 이러한 정신적 우상에 대해 자기 자신을 이상화된 이미지로 본다면 자신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가진 결점은 신의 은총이라는 신념을 확고히 다지게 된다고 피력했다. 이것은 자신은 완벽해야만 한다는 완벽주의 확신에 대한 맹목적 반응으로 자신이 엄격하고, 보다 통제적이고, 보다 신중하기만 한다면 자신은 실제로 완벽해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의 전형적인 반응과 태도로서 자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은총과 인정을 받아야하는 존재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이상화된 이미지는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을 오만하게 하여 자신을 신격화한다.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은 자신에게 특별한 권리와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전지전능하며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행동한다. 커윈(Kirwan, 1986: 254)은 이러한 완벽함과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투사하는 것은 한 사람을 일평생 동안 소모적 속박 아래 둔다고 진술했다. 자기 소모적 속박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마땅히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왜곡된 신념으로 자기최면에 빠지게 하는 것과 같다.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은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가식적인 하나님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지는 왜곡될 수밖에 없으며, 왜곡된 하나님 표상은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Linn, 1994: 7).

왜곡된 자기애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나 믿음이 아니라,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자신을 보이기 위해 열정을 쏟는다. 마이어스(Myers, 1980: 20)는 긍정적 행동은 자신의 덕으로 부정적 행동은 외부로 귀인시킴으로써 자신의 좋은 행동에 대한 공로를 자신에게 취하고 그들의 나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진술하였다. 씨맨즈(Seamands, 1993: 127)는 왜곡된 자기애의 모습에 대해 자아와 자기포기에 대한 거짓되고 미성숙한 이해는 개인에게 자기만족, 자기의, 자기과시를 남겨놓아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게 한다고 피력했다.

왈스(Waals, 1968: 293-311)는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자기만을 사랑하거나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만큼 자신도 사랑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왈스(Waals)의 주장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건강한 하나님 표상을 이미지화 할 수가 없다.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으로 인해 건강한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애적 성격장애자의 왜곡된 표상은 영적 부모인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무한한 사랑의 은혜로 그들의 무의식과 의식에 영향을 주어 변화된 삶을 살게 할 수 있다.

IV.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하나님 표상회복을 위한 기독교 상담 방안

1.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위한 사랑의 중요성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요소는 순수하고, 개방적이며, 정직과 사랑으로 돌보는 태도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또한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요일 4:7-12).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사용하고 개발해야 한다. 인간은 이미 생애의 시작 단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자율성을 배우게 된다. 사랑은 인간에게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며, 인간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배운다. 이렇게 사랑과 친밀감을 주고받는 것

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똑같은 치유력을 발휘한다.

스턴버그(Sternberg, 2002: 26)는 사랑의 세 가지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친밀감, 열정, 헌신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친밀감은 우정의 주요한 질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신뢰, 정직, 존경, 헌신, 안전, 도움, 관대함, 충성, 상호관계, 지속성, 이해 및 인정이다. 이처럼 사랑은 인간의 정서적 측면 뿐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관계적 측면의 하위요소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맥윌리엄스(McWilliams, 2008: 215)는 상담자가 상담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정서적 권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며, 내담자가 상담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역시 사랑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유일하지는 않지만, 사랑은 다른 치료적 활동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해 주는 치료적 요인이라고 했다. 따라서 사랑의 능력은 건강한 자기애를 향한 치료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사랑의 능력은 왜곡되어진 시각 상담대상과 삶을 바라보는 자기애적 성격장애자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상담 받아들일 수 있는 커다란 자원이 되며, 왜곡된 이미지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타인,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실제적 도구가 된다.

2. 하나님 사랑을 통한 친밀함

(1) 예배를 통한 관계적 친밀함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 4:16)라고 말한다. 이처럼 예배는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존재와 뛰어난심과 완전하심에 대해 예배할 때 인간은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누는 친밀한 교제이며, 사랑의 표현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와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대해 사랑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깊은 겸손과 경의를 가지고 인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크라우터(Kraeuter, 2005: 73)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예배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자녀 된 인간들과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적 통로임을 말해준다. 예배 가운데에는 설교, 찬양, 기도의 시간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창조주의 메시지가 선포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예배는 인간의 가치를 반영하며, 인간의 정체성을 알게 한다(Achterberg, 1994: 19). 따라서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에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을 인지시킬 수 있다.

(2) 기도의 대화를 통한 친밀함

기도에서 간구를 기도의 전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간구는 실제로 인간과 하나님의 전체적인 대화 가운데 사소한 하위범주일 뿐이다. 구하기가 인간과 하나님의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 인간의 기도는 왜곡된다. 기도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담력(confidence)'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히 10:19), 이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인간은 그분의 자녀이며, 그러한 관계에 대한 충만한 확신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화이트(White, 2008: 28)는 친밀한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라고 피력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성부 하나님을 이상적인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인간이 정서적, 정신적으로 만들어 낸 인위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것을 통한 영의 맑아짐(찬미), 삶과 죄의 고백

(고백), 용서와 감사한 마음의 표현(감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소망(간구)이 담겨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대화의 장을 열수 있으며, 이러한 기도의 과정은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밥간(Bobgan)은 기도라는 언어적 고백을 통해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고, 다른 신자들의 기도와 함께 그 고백과 회개가 덮여지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진술했다. 즉,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향상시킨다. 따라서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은 하나님과 기도의 대화를 통해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의심과 불신,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사고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되는 계기가 된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자기사랑을 통한 친밀함

(1) 자기성찰을 통한 친밀함

자기성찰은 스트레스, 성격적 특징, 생물학적 영향, 삶의 형성 경험 등 자신을 만든 모든 요소들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성찰은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의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한다(Spring, 2007: 252).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는 자의식과 자신의 가치를 불완전하게 규정한다. 그것은 흔히 깊은 슬픔과 고독감을 동반한다(Ornish, 2007: 110). 이처럼 자기를 건강한 시각으로 성찰하지 못하는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은 왜곡된 사고 속에서 자기만의 환상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에게 자기성찰은 참 자기를 깨닫게 됨으로 자기와의 친밀함을 제공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자기성찰은 다양한 방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스카지로(Scazzero, 2008: 82)는 자기성찰의 방법에 대해 침묵, 고독, 묵상, 기도, 주일성수 등이 있다고 피력하며, 자기성찰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항상 의식하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게 되면 인간의 삶은 변화라고 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성찰은 단지 자기를 돌아보는 행위이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성찰은 진실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이며, 이러한 삶은 스스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삶이다. 고유한 자신으로 성장하는 일은 내면의 심리적 성장을 시작하게 만든다. 인간을 긴장시키고, 편리한 핑계나 습관에 도전을 가하며 친밀한 주고받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느낌, 필요, 욕구에 정직해야 하며, 필연적인 대립과 오해를 수용하며, 이전에 몰랐던 모습들에 자신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 자기성찰을 통한 자기개방은 자신과 얽혔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참된 욕구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2) 자기용서를 통한 친밀함

그리스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제시함으로써 인간이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자기를 용서하기 전까지는 결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치유될 수 없으며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후에 자신을 용서해야 하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충분히 체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숙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다. 자기용서를 못할 때 그 자리는 자아정죄가 차지하게 된다. 이는 파괴적이고, 병적이며, 비신앙적일 수 있다. 자아정죄는 시점의 문제로서 회개하기 전의 자아정죄는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의 첫 과정일 수 있지만 회개 이후에 갖게 되는 자아정죄는 자아멸시, 자아확대에 빠지게 된다(전요섭, 2007: 438).

스머즈(Smedes, 2005: 143)는 인간을 자아정죄에서 구해주는 것은 용서하는 은혜라고 진술했다. 인간은 자신에게 책임 지을 일에 대해서만 자신을 용

서할 수 있다. 비난과 용서는 서로 상응적이다. 자신을 비난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자신을 용서할 용기도 없다.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바로 자신이며, 실패한 완벽주의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더욱 그렇다. 자기애적 성격장애들은 자신은 완벽해야 하며, 특별해야 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와 결함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신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자기용서를 통한 자기 수용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자기용서란 자신이 행한 모든 행동의 결과나 책임 으로부터 무조건 사면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자기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했던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고, 회개하며, 변화된다.

4. 타인사랑을 통한 친밀함

(1) 타인용납을 통한 친밀함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19:19; 22:39, 막 12:31, 눅 10:27, 롬 13:9)는 계명은 도덕적인 계명일 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명령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의미가 있다. 타인을 배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자신이 고독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을 향한 배려의 삶에 더 깊이 결합될수록 몸도 더 건강해진다(Ornish, 2007: 110). 인간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스카지로(Scazzero, 2008: 82)는 타인용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피력했다. 나우웬(Nouwen, 2001: 38)은 “사랑의 기초는 한쪽에서 상대방의 문제를 듣고 이해하며 풀어 주려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기초는 피차간에 자신의 자아를 온전히 고백하는 데 있다. 그럴 때 ‘나의 힘이 곧 너의 힘’ 일 뿐만 아니라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너의 약함이 곧 나의 약함이며 너의 죄가 곧 나의 죄’라고 말할 힘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자기애적 성격장애자가 자신의 행동을 통

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때, 그동안 깨진 대인관계 속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발견하고, 영적 풍요로움과 인간관계에 만족스러움을 깨닫게 된다.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에게 타인을 위한 삶이란 없다. 타인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만족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애적 성격장애자에게 타인과의 친밀함은 이러한 자기만족과 자기지향의 생활을 감소시킨다. 또한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불신의 마음들이 신뢰의 마음으로 서서히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자신과 타인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반영한다. 즉, 인간이 누군가를 성숙한 감정으로 사랑하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참된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난다. 따라서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에게 타인 용납을 통한 친밀함을 느끼게 함으로 분리되었던 타인의 공간이 자신과 타인이 공존하는 공간이 된다.

(2) 타인용서를 통한 친밀함

오니쉬(Ornish, 2007: 175)는 용서를 자기 자신의 오랜 분노, 분리, 고립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즉, 타인용서는 자신이 타인을 향해 품고 있었던 왜곡된 감정들을 해소시키며, 그러한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도움을 제공한다. 용서는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고 용서의 한 부분은 연민, 공감, 사랑을 준다. 그 결과로 용서한 사람은 기쁨을 느끼고 근심과 우울함이 줄어든다(Spring, 2007: 23).

브라운백(Brownback, 2000: 232)은 이타적 자세는 타인이 자신을 비판할 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므로 자신에게 방어적 자기 보호본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본능 충동을 억제함으로써 타인의 비판을 수용할 정도로 성장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이 타인과의 친밀함을 통해 애자들 자학자의 모습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건강한 인격자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다.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은 부모와의 결속관계가 부정적이었던 경험으로 인해 진정한 자의식과 고무적인 자부심을 갖지 못한다. 그 결과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실패나 거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기피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 단지 왜곡된 자기집착의 방법으로 자기 도취에 길들여져 그것이 안전함을 보장해준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삶을 이끌어 나간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자기 보호를 철저히 하는데, 이러한 자기보호가 자신과 멀어지게 하는 틈을 만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에게 하나님의 변함 없는 사랑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도록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동시에 줄 수 있는 궁극적 열쇠가 된다고 본다.

V. 결론

본 연구는 건강하지 못한 자기애를 가진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을 위한 하나님 표상형성에 대한 기독교상담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자기애적 성격장애로 인해 삶 속에서 고통 받는 자들의 이품을 건강한 인격을 소유한 자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함으로써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이 보다 풍성한 인간관계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를 끊임없이 내세움으로 왜곡된 사고를 만들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왜곡된 사고는 정서적 불안감이나 수치심, 질투심, 공허감, 불완전한 느낌, 열등감, 낮은 자존감 등이 내면에 문제시 되어 장애를 일으킨다.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은 이러한 불완전함을 보상받기 위해 독선적 태도, 자존심, 경멸, 방어적 자기 만족감, 허영심, 우월감 등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그러므로 자기애적 성격장애자에게 행동의 급진적

변화 요구나, 과제를 제시한다는 것은 그들의 왜곡된 정서적 욕구들을 강화시키게 된다.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깊은 공감과 이해, 사랑의 돌봄을 통한 친밀감이다. 사랑의 능력은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이 참된 자기를 발견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수용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정서적 불안전환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자기애적 성격장애자에게 사랑의 능력을 제시함으로써 고통의 삶에서 변화의 삶으로 전환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참고문헌

- 전요섭 (2004), 『신학에서 본 심리학』 . 군포: 잠언
- 전요섭 (2007), 『기독교상담과 신앙: 은혜의 방편을 통한 치유와 회복』, 서울: 좋은 나무.
- Achterberg, Jeane (1994), *Rituals of Healing: Using Imagery for Health and Wellness*, New York: Bantam.
- Bandelow, Borwin (2009), *Celebrities: Vom Schwierigen Glück, Beruhmt zu Sein*, 엄양선 역, 『스티는 미쳤다: 성격장애와 매력에 대한 정신분석 리포트』, 서울: 지안.
- Beck, Aaron T. (2008), Arthur Freeman and Denise D. Davis,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민병배·유성진 공역, 『성격장애의 인지 치료』, 서울: 학지사.
- Behary, Wendy T. (2008), *Disarming the Narcissist: Surviving and Thriving With the Self-Absorbed*, Oakland, CA: New Harbinger.
- Bobgan, Martin and Deidre Bobgan (1985), *How to Counsel from Scripture*. Chicago: Moody.
- Brownback, Paul (2000), *The Danger of Self-Love*, 김광의 역, 『크리스찬의

- 자기사랑』, 서울: 아카페.
- Davis, Melinda (2003), *The New Culture of Desire*, 박윤식 역, 『욕망의 진화』, 서울: 21세기북스.
- Dunn, James D. G. (2003), *Word Biblical Commentary, v.38A: Romans 1-8*, 『WBC 성경주석, 38A. 로마서(상)』, 서울: 솔로몬.
- Flynn, Mike and Doug Gregg (2002), *Inner Healing: A Handbook for Helping Yourself & Others*, 오정현 역, 『내적 치유와 영적 성숙』, 서울: IVP.
- Fromm, Erich (1998), *The Art of Loving*, 백문영 역, 『사랑의 기술 인간의 마음』, 서울: 해원.
- Gerkin, Charles V. (1998), *The Living Human Document: Re-Visioning Pastoral Counseling in a Hermeneutical Mode*, 『살아있는 인간문서』,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Gregory, Hamilton N. (1998), *Self and Others: Object Relations Theory in Practice*, 김진숙·김창대·이지연 공역,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 자기와 타자』, 서울: 학지사.
- Holmes, Jeremy (2003), *Narcissism* 유원기 역, 『나르시시즘』, 서울: 이제이북스.
- Horney, Karen. (2006), *Our Inner Conflicts*, 이희경 외 공역, 『신경증적 갈등에 대한 카렌 호나이의 정신분석』, 서울: 학지사.
- Hotchkiss, Sandy (2003), *Why is It Always about You?: The Seven Deadly Sins of Narcissism*, New York: Free.
- Kernberg, Otto F. (2005), *Love Relations: Normality and Pathology*, 윤순임·이용승·김정옥·도상금·심영숙·문형춘·남기숙 공역, 『남녀관계의 사랑과 공격성: 정신분석적 이해』, 서울: 학지사.
- ____ (2008), *Aggression in Personality Disorders and Perversions*, 이재훈·박동원 공역, 『인격장애와 성도착에서의 공격성』,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____ ((2008),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윤순임

·이용승·김정옥·도상금·심영숙·문형춘·남기숙 공역, 『경계선 장애와 병리적 나르시시즘』, 서울: 학지사.

Kirwan, William T. (1986), *Biblical Concepts for Christian Counseling: A Case for Integrating Psychology and Theology*, Grand Rapids: Baker.

Krauter, Tom. (2005), *Times of Refreshing*, 이종환 역, 『예배자가 알아야 할 60가지 메시지: 기쁨부음 있는 예배 사역의 열쇠』, 고양: 예수전도단.

Linn, Dennis, Sheila F. Linn and Matthew Linn (1994), *Good Goats: Healing Our Image of God*, Mahwah, NJ.: Paulist.

Masterson, James F. (2000), *The Search for the Real Self*, 임혜련 역, 『참자기』,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May, Gerald G. (2006), *The Awakened Heart: Opening Yourself to the Love You Need*, 김동규 역, 『사랑의 각성』, 서울: IVP.

McGrath, Alister E. & McGrath, Joann (2003), *Self-Esteem: the Cross and Christian Confidence*, 윤종석 역, 『자존감』, 서울: IVP.

McWilliams, Nancy (1994), *Psychoanalytic Diagnosis: Understanding Personality Structure in the Clinical Process*, New York: Guilford.

____ (2008),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권석만 외 공역, 『정신분석적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Myers, David G (1980), *The Inflated Self*, New York: Seabury.

Ornish, Dean (2007) *Love and Survival*, 김현성 역, 『관계의 연금술』, 광주: 북하우스.

Rizzuto, Ana M. (2000) *The Birth of the Living God: A Psychoanalytic Study*, 이재훈·유영권·안석모·황영훈·반신환·정희성 공역, 『살아있는 신의 탄생』,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Scazzero, Peter (2008),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 조계광 역,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서울: 생명의 말씀사.

Seamands, David A (1993), *Putting away Childish Things*, 윤병하 역,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서울: 두란노.

- Smedes, Lewis B. (2005), *The Art of Forgiving*, 이여진 역, 『용서의 미학: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모를 때』, 서울: 이레서원.
- Spring, Janis A. (2007), *How Can I Forgive You?: The Courage to Forgive, the Freedom Not to*, 양은모 역, 『용서의 기술』, 서울: 메가트렌드.
- Sternberg, Robert J. (2002), *Cupid's Arrow: The Course of Love through Time*,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여 사라지는가』, 서울: 사군자.
- Takashi, Okada (2006), *Personality Shogai*, 유인경 역, 『나만 모르는 내 성격』, 서울: 모멘토.
- Trobisch, Walter (2001), *Love Yourself: Love is a Feeling to Be Learned*, Bolivar, MO: Quiet Waters.
- Vitz, Paul (1977), *Psychology as Religion: The Cult of Self-Worship*, Grand Rapids: Eerdmans.
- Waals, Van der. H. G. (1968), "Problems of Narcissism" *Bull. Menninger Clinic*, 29: 293-311.
- White, James E. (2008), *The Prayer God Longs for*, 이용중 역, 『하나님이 갈망하는 기도』, 광주: 살림.
- Young, Jeffrey E, Janet S. Klosko, & Marjorie E. Weishaar (2005),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권석만·김진숙·서수균·주리에·유성진·이지영 공역, 『심리도식치료』, 서울: 학지사.

ABSTRACT

Influence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the Formation of the Image of God

Hyun-Chul Park(Sungkyul University)

Joseph Jeon(Sungkyul University)

This paper presents an analysis of the formation of the image of God in people with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is work reviews morbid self-love and the obstacles it presents to developing a healthy viewpoint of God, in an endeavor to providing effective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with this disorder.

This paper deals with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of the image on God in people, with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re discussed; this is done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three aspects: (1) how the sinful nature of humans is related to self-love, (2) how the view of God is held out of healthy self-love and (3) ho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leads to incorrect interpretations regarding the image of God. Also, this article observes how the power of love is an essential element of Christian counseling, enabling people with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develop a healthy, acceptable image of God. Christian counseling holds that love is of vital importance in treating the disorder. It aims to assist such people in recovering their

intimacy with God by acquiring a correct understanding of God's love. Further, the counselors encourage them to learn to love themselves in a genuine and healthy manner, and also learn to love others likewise.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s closely related with emotional instabilities such as anxiety, disgrace, jealousy, emptiness, and a sense of insignificance. The researcher hopes that this study will be of help to people suffering from this disorder, by treating them with love and understanding through Christian counseling.

Key Words: Narcissism, Personality disorder,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mage of God, Christian counseling.